

함께(이용자, 지역주민, 직원)
변화하는 행복한 복지관

버드나무처럼
장애인복지의 본질은 변함없이,
세상 흐름에 맞춰 가치를 흐르는 유연함이
우리의 성장이자 변화의 방향입니다.



www.seoulcbid.or.kr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실현하는 복지관

복지관 후원계좌 국민은행 085-01-0185-991 예금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문의 02.440.5715

보통의 하루

2024. vol.363

통권 363호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인 곽재복
편집 기획협력팀 박민선 T. 02-440-5742
제작 문화공간
발행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명예편집위원장 곽재복 편집위원장 최미영
편집위원 박민선 양철원 김상희 김태라 김경은 반미소 김나혜 하동기
정기 구독 신청 02-440-5742
온라인 구독 신청



#함께 #체인지



Change.
변화의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이번 호
‘보통의 하루’ 표지를 장식한 키워드입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기에 복지관도 매년 변화와 성장에 관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새삼스럽지 않은 ‘변화’지만, 올해 복지관
사업 모토인 ‘함께(이용자, 지역주민, 직원) 변화하는
행복한 복지관’에는 ‘함께’의 주체들이 ‘변화’를 이끕니다.
그런 특별함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 가는 변화답게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관보 ‘보통의 하루’도 복지관이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여러 소식과
이야기로 보여줄 계획입니다.
상반기를 채운 이번 호에서도 복지관의 특별한
‘체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민선 ‘보통의 하루’ 편집자

CONTENTS

우리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곽재복 관장 인터뷰

04

장애인복지관이 로봇 기술을 만나면?

06

06



14



작은 행복의 기억이 이끈 변화

푸르메학교 배성재 씨,
그리고 외삼촌 정원석 씨 인터뷰

10

직원과 복지관을 성장시키는 실천 ‘자발적 학습조직’

12

주민기획단, 지역 변화의 주체가 되다

14

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좋은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의 실천과 배움

16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나이 들기 중장년 당사자의 행복한 직업탐색 ‘푸른 동행’

20

End.가 아닌 And, 푸르메아카데미 1기 졸업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오리엔테이션

22

22



26



경천애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 전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
대덕복지재단

24

복지관 뉴스룸

26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인터뷰 곽재복 관장



이용자, 지역주민, 직원. 이 세 주체를 ‘함께’로 엮다

장애는 개인만이 아닌 사회와 그 밖의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만큼, 장애인 복지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의 개념과 이해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0년 처음으로 국제장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몇 차례 보완을 거쳐 지금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ICF는 특히, 개인의 장애와 배경 요인(환경, 개인)과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여 한 개인의 장애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심을 두었죠. 같은 맥락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나 포용과 연대를 강조한 지역사회포괄개발(CBID)과 같은 장애인 복지 실천에서는 이용자, 지역주민, 직원이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복지관은 그 모든 주체와 함께하며 장애가 있어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이웃과 지역의 일에 관심 갖는 주민들로부터 공동체성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2024년 사업 모토 ‘함께(이용자, 지역주민, 직원) 변화하는 행복한 복지관’을 말하다

변화의 방향, 변화의 핵심

지금까지 해 온 성과에 근거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펼쳐가는 것이고, 변화의 핵심은 다 영역 간 ‘협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만의 강점인 ‘다 영역 협업’으로 기존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와 다양성에 주도력을 갖고 더 나은 지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영역이 가진 전문성이나 창의성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올해 더 힘을 싣고자 하는 게 복지관 안에서의 다 영역 협업과, 밖으로의 지역사회 협력입니다. 복지관 사업을 구성하는 전 영역이 안팎으로 협력의 주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복지관’을 뜻하는 행복의 요소

행복은 너무 크거나 원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것이 즐겁고 이용자를 만나는 게 반가운 것, 우리는 그런 행복을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2023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 지수 99.9점을 받아 감사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복지관의 노력을 이용자가 알아주고 표현해 준 것에 대해 한 분 한 분 손잡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용자 만족을 이루는 순간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앞으로도 장애를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건강한 관계가 살아나고, 모두가 동등하고 보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하고 성장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버드나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버드나무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람이 불어도 줄기는 흔들림 없이, 가지만 바람 따라 물결칩니다. 버드나무처럼 장애인 복지의 본질은 변함없이, 세상 흐름에 맞춰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갖는 게 우리의 성장이자 변화의 방향입니다. 



관장님
인터뷰 동영상



장애인복지관이 로봇 기술을 만나면?



2022년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를 시작하며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단계별로 적용해 가고 있는 가운데 능력향상축진부는 2024년 에도 새로운 시도와 소식을 알렸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 '디담'과 인지 기능 향상을 돕는 멀티 터치 테이블 '해피테이블'을 도입하여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서울권역 장애인 복지관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재활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나는 보행 재활 로봇

재활치료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장애인 복지 실천 사례를 확대해 가기 위해 능력향상축진부는 올해 서울권역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보행 재활 로봇을 도입했다. 재활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과 신기술의 혜택은 지금까지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역사회 복귀 후 장애인의 '보통의 삶'과 함께하는 복지관의 역할로서 더 늦지 않게 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에 다가가고자 했다.

앞서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를 통해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능이 적용된 디지털 콘텐츠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만큼 복지관 이용자들도 디지털 기술에 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조금씩 재활 로봇에 관한 욕구도 확인되던 참이었다.

서울권역에는 로봇 재활을 하는 곳이 병원밖에 없던 상황에서 높은 비용과 접근성 등 이용자 관점에서의 필요성과 편의를 생각했고,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꾸준한 재활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밀접한 복지관에서의 도입이 필요해 보였다.

먼저, 경기도권 지역사회 재활 시설에서 이미 이루어 가고 있는 재활 로봇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으로 동행하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을 건학했다.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후, 이어진 기회로 푸르메재단을 통해 후원 기업 유엔아이솔루션즈, 코리아 이매지니어링을 만났고, 준비를 거쳐 작년 말 엔젤로보틱스의 보행 재활 로봇 '엔젤렉스 M20'을 도입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보행 재활 로봇 서비스를 앞두고 지난 1월에는 복지관 물리치료사 전원이 엔젤로보틱스가 진행한 총 3일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치료사가 직접 로봇을 착용하여 시연해 보면서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공감하고, 더 섬세한 조작과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훈련을 받았다. 또, 교육 기간 중 사전 동의를 받은 아동,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착용하고 적용해 본 후 움직임과 반응을 예측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용자마다 재활 목표에 따라 도전해야 하는 자세나 로봇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 다른 만큼 무엇보다 재활 목표에 부합하여 맞춤형으로 적용해 가기 위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올해는 시범적으로 보행 재활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재활치료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치료사와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지상에서의 보행훈련과 보행 능력 향상을 돕는 동시에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등 참여도가 높아 그만큼 좋아질 재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원이는 걷는 걸 좋아하는 하는데 바른 자세로 선다던가 걸을 교정해 주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보행 재활 로봇은 처음이지만, 바른 자세와 보행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됩니다.

아동 보호자 이명희 씨

로봇 재활을 하고 나서 환측 방향으로 지지하는 게 좋아졌어요.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무겁지만, 끝나고 나서 혼자 걸을 때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면서 보행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다른 분들도 경험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당사자 안정애 씨



자료 제공 및 인터뷰 능력향상축진부 홍현선 물리치료사, 조일란 부서장
글·사진 편집자, 디지털융합팀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한 복지관의 실천 전략 중 하나로 올해 능력향상촉진부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노력은 보행 재활 로봇 도입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이용자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 경험을 늘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장애 유형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을 생각했다. 그래서 보행 재활 로봇과 함께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 '디딤'과 인공지능 향상을 돕는 멀티 터치 테이블 '해피테이블'을 함께 시작했다. '디딤'은 그동안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적



인공지능 향상을 돕는 멀티 터치 테이블
'해피테이블'



용한 디지털 콘텐츠이지만, 기존과 다른 새로운 콘텐츠를 탑재했다. 무엇보다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는 심리운동실에 구축한 디지털 서비스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디딤'은 가로 6m, 세로 4m 정도의 바닥 공간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심리운동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경험을 다양한 장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확장한 것이다. '해피테이블'에는 인지기능 향상은 물론 교육용, 여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탑재했다. 아이들에게는 재활의 재미 요소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이 되며,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만큼 누구든지 여가와 놀이로 즐겁게 체험해 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복지관 직원과 이용자, 그리고 모두가 새로움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이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함께 익숙해지며, 그 안에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와 관계 없이 디지털 기기의 활용 방식과 콘텐츠를 선택하고, 활용과 중단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미래다.

디지털의 유해 측면에 압도되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이미 개발된 디지털 도구의 방식에 모든 당사자를 획일적으로 맞추기보다, 디지털과 함께해야 하는 시대인만큼 그 장점을 찾고, 이용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과 가족이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면 당사자를 위한 기술로 활용해 가는 게 능력향상촉진부가 보여주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이다. 🌊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 '디딤'



작은 행복의 기억이 이끈 변화

푸르메학교 배성재 씨,
그리고 외삼촌 정원식 씨 인터뷰

누구나 행복한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을
쫓아 다시 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배성재 씨.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푸르메
학교'에 참여 중인 배성재 씨와 그 곁에 함께
하는 외삼촌 정원식 씨를 만나 행복의 기억이
이끈 복지관과의 두 번째 인연을 들어보았다.

누구나 행복한 기억이 있다

배성재 씨는 10대 초반 무렵부터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병마가 찾아온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워지자, 입원하는 시설에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삼촌 정원식 씨가 보호자 역할을 맡았다. 그 또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조카가 입원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오가며 돌봄을 이어갔다.

“당시 입원 시설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였어요. 성재는 입원 생활 적응을 많이 힘들어했고, 실제로 잘 관리되지도 않았어요. 잔병치레가 잦았고, 상처도 많이 났어요.”

정원식 씨가 조카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은 건 정년퇴직을 맞이한 이후다. 자녀들도 성장하여 독립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배성재 씨의 어려움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역의 기관이나 제도 등에 관해 전혀 아는 것 없이 그저 둘이 여행 다니며 지내면 될 것만 같았던 그에게, 사회로 나온 조카는 그야말로 복병이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혼자 나가서 이웃집 택배며 배달 온 음식을 다 뜯어 버리기 일쑤였고, 정원식 씨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멈추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동 주민센터를 찾았고,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복지관이 진행하는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 사업 '푸르메학교' 참여를 결정했다. 그간 배성재 씨가 보여온 모습들로 인해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 새롭게 안 사실과 더불어 조금의 기대도 생겼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배성재 씨에게 '처음이 아니라, 어릴 적 행복한 기억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복지관 얘기를 곧잘 했어요. 들을 땐 정확히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여기였던 거예요. 성재가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이 복지관을 다녔고, 그때의 행복한 기억을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걸 이때 처음 안거예요. 실제로 복지관에 가보니 많은 직원이 성재를 알아보고, 서로 반가워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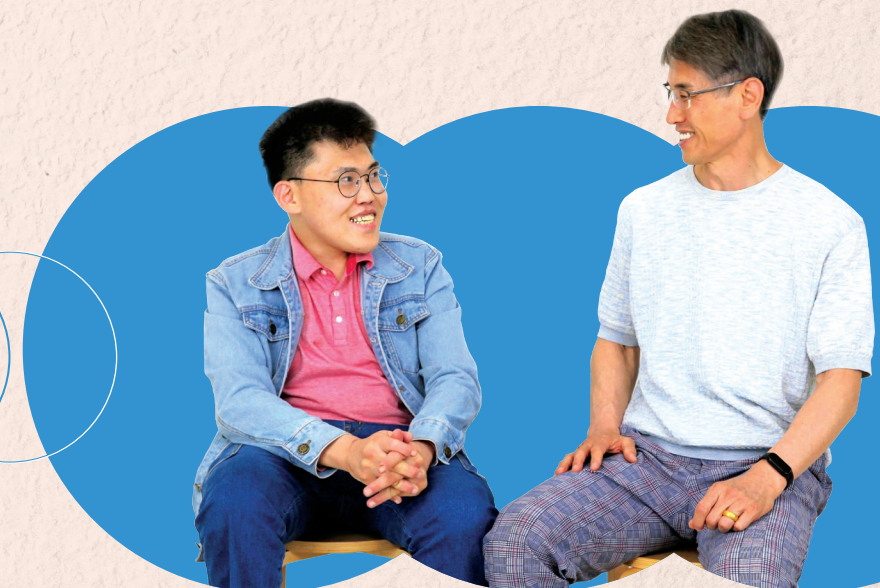
작은 행복의 기억이 이끈 복지관에서의 두 번째 인연으로 배성재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과격하지 않고, 내 것과 다른 사람 것을 구분하여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배성재 씨의 행복한 표정이었다.

변화의 포인트는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배성재 씨는 푸르메학교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에게 익숙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복지관은 그런 배성재 씨를 위해 후원을 연계하여 생활을 돕고, 치과 진료와 여행을 지원하는 등 과거에 이어 행복한 기억을 쌓는 데 함께했다.

“복지관은 성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친절하고, 애정이 깊은 관심이 느껴져요. 그동안 누구도 성재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분리하고 통제하는 건 성재를 조금도 나아지게 하지 못했죠. 세상에 좋은 사람 많다고 하는 거 안 믿었는데, 복지관에 와보니 알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걸요.”

서른셋, 앞으로 더 좋은 기억을 채워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 배성재 씨를 바라보며 정원식 씨는 그가 더 이상 통제받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랐다. 처음에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둘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희망이 생겼다. 🌱



직원과 복지관을 성장시키는 실천

‘자발적 학습조직’

복지관 인재상에 부합하여 자기개발을 통한 경쟁력과 창의적 직원 개발을 지원하는 ‘자발적 학습조직’을 운영한다. 올해도 총 9개의 팀이 활동 중이며, 2개 팀을 만나 진행한 5문 5답을 담았다.

글 김보아 작업치료사(스텝 바이 스텝 대표), 김정훈 팀장(디지털 복지 파이오니어스 대표)
인터뷰 정리·사진 편집자

Q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하나씩,
Step by Step!

‘스텝 바이 스텝
(Step by Step)’



01 ‘스텝 바이 스텝’ 탄생 배경

복지관은 선진 치료기법으로 보이타 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도입했고, 그에 따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전문요원교육도 개최하고 있어요. 전문 통역사와도 협력하지만, 교육을 주관하고 행정 절차로 직접 간단한 소통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할 때면 영어 회화나 어휘력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거기에 공감한 직원 3명이 모여 영어 실력을 ‘차근 차근’ 키워가자는 의미로 ‘스텝 바이 스텝’을 조직했어요.

02 올해로 2년째 진행 중인데, 가시적인 성과는?

꾸준히 영어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별 문장을 정해서 학습하고, 업무 중에 적용해 보기도 했어요. 실제로 영어 이메일을 보내거나 국제 강사의 요청에 대응해야 할 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영어를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접하고 학습한다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03 ‘스텝 바이 스텝’을 운영하는 방식

자발적 학습조직 지원금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꾸준함’을 목표로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다 같이 만나서 학습하고, 필요한 영어 회화를 연습해요. 온라인 강제는 모임 이후에도 개인적인 학습이 가능해서 효율적이에요.

04 특별히 정한 목표가 있다면?

의사소통에 관한 영어 회화를 학습하는 만큼 올해는 꼭 ‘OPIc(미국 외국어교육위원회에서 개발한 외국어 말하기 평가)’에 응시해 보기!

05 자발적 학습조직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렇게 뜻이 맞는 동료와 함께하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5문5답

Q
복지관
서비스에
신기술을 통합해
가는 개척자들

‘디지털 복지
파이오니어스’



01 어떤 학습모임인지 쉽게 정의 내려본다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신기술을 복지관 서비스에 접목해 보고자 만든 자발적 학습조직입니다. 즉, 복지관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임입니다.

02 이 모임만의 특별한 점

어느 한 사업 영역이 아닌 다양한 부서 직원 8명이 참여한다는 것!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각 직원이 맡고 있는 사업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열정에서 비롯되었죠.

03 디지털 복지 ‘파이오니어스(Pioneers)’는 어떤 의미로?

개척자를 의미하는 ‘파이오니어스’. 디지털 기술을 학습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용자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목표로!

04 모임의 내용과 방식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에 관한 학습과 응용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업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는 일이에요. 이 모임에서 직원들은 서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모두의 아이디어를 확장해 갑니다.

05 자발적 학습조직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배움도 소통도 일석이조라는 점. 여러 부서의 직원이 참여하다 보니 협력과 소통의 기회도 만들어져요. 🌿

주민기획단, 지역 변화의 주체가 된다

글 지역옹호협력팀 안예영 사회복지사
사진 편집자

주민기획단과 함께 걷는 길

장애가 있어도 살 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서 정붙이고 살 만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이 지역 변화의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복지관과 함께 걷는 주민기획단의 이야기다.



우리가 꿈꾸는 '장애가 있어도 살 만한 지역사회'. 그 속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역옹호협력팀이 진행하는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사업의 중심에는 '주민기획단'이 있다. 장애와 상관없이 지역주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만나 장애가 있어도 살 만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오늘도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인사캠페인을 펼치는 주민기획단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장애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해 온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올려라' 행사에서 장애 감수성에 기반한 문제 출제를 위해 주민기획단을 꾸린 것이 시작이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의 특수교사, 장애는 없지만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찾아온 주민 등이 지역 어린이들의 올바른 장애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일에 함께하며 장애이해퀴즈쇼 개최 의미를 한층 높였다. 매년 주민기획단에 지역의 여러 구성원이 참여하면서 그 역할 또한 문제 출제를 넘어 행사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이런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지난해부터는 '생활복지운동' 사업에도 주민기획단을 새롭게 꾸렸다.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아이디어를 모은 끝에 아파트 단지 내 인사캠페인이 탄생했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을 활용하여 이웃 간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내용으로 주민기획단이 직접 각 동을 돌며 설치와 수거를

맡아 인사캠페인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한, 지역의 도서관 세 곳에도 주민기획단이 직접 제작한 엽서를 비치해 인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장애가 있어도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주민의 아이디어와 주민의 역할로.

주민의 변화는 곧 지역의 변화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사업은 복지관의 사명과 같이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향한다. 이처럼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강점과 관계를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게 주민기획단의 탄생 배경이다.

장애이해퀴즈쇼와 생활복지운동에 함께 한 주민기획단이 그랬듯,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잠재된

주도성이 발휘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재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주민들이 많아진다면 한 번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날갯짓이 되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까지도. 그런 의미에서 주민기획단은 복지관의 사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업을 이루어 가는 또 다른 주체로 통한다. 함께 이루어 간 일들을 통해 아주

작게나마 지역이 생동하는 것을 볼 때 주민기획단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주민의 변화이자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바로 그 시작점.

그렇기에 우리의 바람은 앞으로도 주민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장애가 있어도 살 만한 환경에 관심 갖는 한 사람, 그 환경이 되어줄 주민을 세워가는 것이다.



시작 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변하고 내가 변했어요. 여전히 사회는 각박하지만, 생활복지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만큼은 조금이나마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자고 메시지를 주는 게 참 와닿아요. 복지관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루어 가는 일이라 더 의미 있고요. 더 많은 주민이 참여로 지역을 넓혀가면 좋겠어요.

배정아 씨(생활복지운동 주민기획단)



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좋은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

글 사람중심서비스국 최미영 국장
정리·사진 편집자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의 실천과 배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에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 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있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여 신청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적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해 시범사업 모델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 함께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주도성을 높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은 장애인복지관이 갖는 첫 번째 기능이다. 사람중심계획(PCP-Person Centered Planning)에 바탕을 둔 복지관의 사람중심실천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이후에도 다 영역 서비스에 걸쳐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로 반영된다. '보통의 삶'을 향한 이와 같은 방향성과 맞닿아 지난해 11월, 개인별 지원계획이 당사자의 실제 삶으로 실현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원 요소가 되는 '개인예산제도'를 만났다.

당사자의 삶에 필요한 변화, 그 변화를 위한 지원을 찾아가는 과정

당사자의 삶이 있는 지역사회. 복지관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당사자의 삶을 관찰하고 지원해 왔다. 당사자가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 예산이 사용될 지역사회와 서비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관만의 강점을 살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에 함께하고자 했다.

당사자를 존중하며, 지역사회 속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람중심실천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해 온 자기주도지원부, 지역포괄축진부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모의적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퍼실리테이터로서 당사자 주도의 삶의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했다.

이번 모의적용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계획하고,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를 승인하는 단계까지 실제 개인예산제 운영 절차를 시행해 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모의적용인 만큼 복지관은 개인예산 지급 전

단계인 '개인별 자기주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절차별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예산'이 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좋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역할 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모의적용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성인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23명을 만나 각자 삶에 필요한 변화를 찾고, 그 변화를 위한 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에 함께했다. 각 당사자가 자기 삶을 직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존중을 담은 '경청'을 바탕으로 두었다. 당사자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식을 찾아 생각을 정리하고 구체화할 수 있게 중재했으며, 선택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과 한계에 대한 조언을 통해 촉진자로서도 역할 했다.

이로써 TFT는 당사자 한 명당 평균 2.7회의 만남, 그리고 평균 22시간에 걸친 상담과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사람중심 실천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개인별 자기주도 지원계획서'를 완성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TFT
(왼쪽부터)지역옹호협력팀 장영균 팀장, 상담가축지원팀 오경민 사회복지사, 지역생활지원팀 권정옥 팀장, 자기주도지원부 유은일 부서장, 최미영 국장, PCP넷활동지원팀 부선정 팀장



시작은 시범이었지만, 그 시작은 계획이 되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은 당사자가 실제 바라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개인별 자기주도 지원계획서’라는 성과를 남기고 끝이 났지만, 당사자들의 삶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이번 모의적용 사업에서는 개인예산 지급까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지관은 ‘개인별 자기주도 지원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당사자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하고 개입함으로써 복지관이 가진 자원 및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계획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막연히 안정된 직장과 가장으로써의 삶을 꿈꾸던 한 당사자는 아내의 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어 특기를 살린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 어떤 당사자는 장애를 갖기 전 수영선수로 활약했던 기억으로부터 ‘수영 심판이 되어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발견했다. 복지관은 많은 시간을 쏟아 함께 찾고 세워간 이들의 ‘희망’이 계획서로만 남지 않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자기 삶에 직면하여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작은 시도를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앞으로 맞이할 ‘개인예산제도’가 당사자에게 의미 있고 좋은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그리고 당사자의 주도적인 삶을 이뤄가는 지원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란다. 🌊

노재환 씨 복지관을 통해 이번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등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 온 진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처럼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도 좋았고, 그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준 복지관 선생님들을 보면서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발견하면서 재밌었고,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인생 계획을 세워봤어요. 3월부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시작했고, 틈틈이 봉사활동처럼 관련된 경험을 쌓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고 싶어요. 참여 전에는 내가 도움이 될지 걱정했는데, 이 과정을 계기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Interview



노재환 씨 인터뷰 동영상

최미희 씨 오래전 장애를 갖게 됐을 때 몸도 마음도 고통이 컸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생각에만 그치기 일쑤였는데, 뭔가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선풍 용기 내지 못하고,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 정보가 없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복지관과 함께하며 내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법과 조언으로 도움을 받으니, 그동안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채워졌어요. 계획이 생기니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고, 내 삶 자체가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공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기회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생각한다는 게 참 좋습니다.



Interview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나이 들기

중장년 당사자의 행복한 직업탐색 '푸른 동행'

글 직업능력향상팀 김경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정리·사진 편집자

중장년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중장년 발달장애인 가운데 '직업'의 문턱 가까이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욕구를 살펴 직업지원부는 '중장년 당사자를 위한 직업활동 및 직업탐색'을 새롭게 시작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 직업탐색을 시작하다



지난해 10월, 지역사회 거주시설 및 중장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 7곳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장년이 된 발달장애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현저히 낮다는 점, 특히 직업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거주시설이나 가정에서만 보내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과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확인했다.

그에 따라 직업지원부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일상생활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활동 및 직업탐색'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직업 경험이 없는 중장년 발달장애인 6명이 참여하여 그해 12월까지 직업적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열 번의 만남을 가졌다.

청년기 당사자의 직업적응훈련은 직업을 갖기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직장인의 자세를 배우지만 중장년 당사자의 직업탐색은 직업 준비에 앞서 적성과 흥미를 찾아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었다.

직업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한편 직업적 능력과 강점을 찾아가는 직업탐색의 시간이 중장년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랐다.

직업적 흥미로 자기효능감을 찾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당사자의 소감이 의미 있는 성과가 되어 올해는 '중장년 당사자의 행복한 직업탐색' 사업을 공식화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직업'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새롭게 도전하는 만큼 희망과 동행의 의미를 담아 '푸른 동행'이라는 활동명도 지었다.

중장년 발달장애인 6명과 함께하는 열 번의 만남은 '일'

과 '직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직업의 종류, 바리스타와 컴퓨터 직무 탐색, 발달장애인의 취업 유형 알기, 다양한 직무 체험, 직업적 강점과 흥미 찾기 등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앞서 시범사업 참여자들도 후속 모임인 '푸른 동행 이어가기'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가기로 했다. 직업탐색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개인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관 견학과 직무 경험,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 등 조금 더 주도적인 지역사회 활동 내용을 포함했다.

이렇게, 단순한 여가로만 시간을 보내야 했던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직업적 강점과 흥미에 의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중이다.

직업지원부가 시작한 '중장년 당사자의 행복한 직업탐색'은 중장년 발달장애인도 '직업'을 주제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푸른 희망을 담았다. 그들의 나이 들기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



End.가 아닌 And,

푸르메아카데미 1기 졸업식,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기 오리엔테이션

글 PCP낫활동지원팀 정현진 사회복지사
사진 디지털융합팀



“멋진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푸르메아카데미 1기 졸업식

2019년 3월 4일, 그리고 2024년 2월 29일.

성인 발달장애인 낫활동 프로그램 ‘푸르메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한 날이며, 감동적인 졸업식이 열린 날입니다. 푸르메아카데미는 ‘사람중심생각(PCT, Person Centered Thinking)’을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지원과 자기주도적 낫활동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온전히 누리는 행복’이란 의미를 담아 푸르메아카데미를 이루는 두 개 반의 이름을 ‘가온반’과 ‘누리반’으로 지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삶의 변화가
오롯이 담긴 가족
(지원자)의 이야기

“복지관 직원들의 지원 속에서 존중과 관심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행복했어요.”
“의사 표현이 다양해 진 게 제일 좋아요. 가족 간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룹 활동을 통해 규칙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서 사회성이 좋아졌어요.”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찾았어요.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푸르메아카데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상장 수여식

이러한 삶의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복지관, 그리고 자기주도지원부 속 다 영역 직원들이 존중과 마음을 다해 푸르메아카데미 당사자들을 만난 까닭입니다. ‘자기주도지원부’ 이름처럼 발달장애인들의 자기주도적 ‘보통의 삶’을 향해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걸어온 지난 5년의 성과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졸업식, 그리고 이날의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 위에 오르는 졸업생들을 위해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특별한 상장을 제작하고, 상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답게 푸르메아카데미에서 함께 한 모습을 엮은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가자는 울림을 담아 푸르메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준비한 난타 공연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End.가 아닌 And,’로.

“새로운 만남, 우리 모두 다시 시작이다!”

푸르메아카데미 2기 오리엔테이션

2024년 4월 15일.

4월 1일부터 2주간 적응평가 기간을 마친 푸르메아카데미 2기 참가자들과 가족(지원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푸르메아카데미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환영하고 인사 나누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은 여러분의 의사 표현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 사람중심서비스국 최미영 국장 환영사 중

환영사에 이어 푸르메아카데미를 진행하고 함께 지원해 가는 직원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푸르메아카데미 2기에 참여하게 될 10명의 당사자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환영의 박수로 소개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인 만큼 푸르메아카데미를 소개하는 내용, 함께 하게 될 활동과 일정을 안내하고, 가족(지원자)이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푸르메아카데미

푸르메아카데미의 본질은 자기주도적 낫활동입니다. 각자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하는 것, 자기 결정을 통해 삶을 주체를 ‘나’로 만들어 가는 것, 나의 역할이 있고, 때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며 ‘보통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Important to)’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Important for)’의 균형을 찾아 지역사회 속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다시 한번 단계적 실천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존중이 담긴 정성과 긍정적인 지원이 언제나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 우리 모두 다시 시작이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좋은 이웃

대덕복지재단

복지관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기업, 단체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공익을 위한 책임을 나누어 짊어짐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매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글 후원재무팀 김태라 사회복지사

경천애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잘 전하겠습니다.

대덕복지재단(이사장 김영재(주대덕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 전자 산업의 시작이자 제조업의 시초인 대덕전자(주)의 설립자인 고(故) 김정식 회장이 경천애인(敬天愛人)과 공동운명체 정신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입니다.

1997년 김정식 회장이 명일동을 지나던 중 우연히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지관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김정식 회장 개인은 물론 대덕전자, 대덕복지재단을 통해 매년 1천여만 원의 기금이 지원되어 다양한 재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 생활을 효과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012년부터 대덕복지재단의 기금을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사업'에 지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총 1억 3천만 원으로 90여 명의 중증 장애인 가정이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의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과 부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편의시설 공사가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없애고, 지속적인 돌봄으로 건강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부양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 내 전동식 환자 리프트, 방석형 리프트, 간호 및 식사 지원, 욕창 방지 등을 위한 전동식 의료용 침대, 휠체어 이동을 쉽게 하는 조립식 경사로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장애 상태와 나이, 활동 범주와 필요도를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춤으로 이너 체어를 지원받아 자세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에 쓰던 건 사용하던 것을 나눔 받아서 들고고 몸에 맞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식사 시간에도 잘 쓰고, 주로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칭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스쿠터를 지원받아 취업 후 출퇴근 걱정을 덜었어요. 외출하려면 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스쿠터

를 타고 혼자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약속이 생겨도 이동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부담 없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무장애 등산코스도 다녀왔어요. 스쿠터가 없었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텐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대덕복지재단
지원사업 관련 영상



복지관은 지난 4월 11일, 김정식(헨리코) 회장님의 5주기 추모 미사에 다녀왔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사원 2천여 명에 이르는 대기업을 이끌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뿐 아니라, 해동과학문화재단과 대덕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과 인재 양성, 사회복지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인 고인의 뜻을 기억하는 자리였고, 기금 사용에 대한 기관의 책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덕복지재단의 소중한 나눔이 복지관과 함께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식 회장님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분들입니다.(가나다순, 가족순) 소중한 마음과 참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후원		강남춘	강대홍	강애리	강원봉	강민준	강용원	강유선	강호수	고명숙	고보민	고옥곤
고주진	구동준	권경민	권승민	권승주	권순남	권순희	권승철	권은경	권현정	권희정	금병란	김경포
김경현	김계동	김광목	김교연	김교찬	김귀선	김규경	김규완	김기석	김길호	김도연	김동순	김두일
김명수	김미선	김민우	김민자	김상현	김셋별	김선정	김성구	김성수	김성연	김성오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세경	김수안	김수연	김신한	김양빈	김양숙	김양신	김영건	김영대	김영순	김완임	김우경
김은숙	김은엽	김은주	김은희	김장원	박미자	김정문	김정식	김민지	김정은	김정혜	김정환	김정후
김종철	김주영	김준수	김준태	김준홍	김진욱	김창곤	김창형	김창훈	김태경	김태곤	김태라	김태연
김태훈	김현재	김현정	김혜경	김혜운	김희재	김세훈	남보람	남상조	남영호	노병우	노우정	노은희
문송수	문영배	문화선	민동필	박경희	박길용	박동주	박미경	박상국	박상준	박성만	박성희	박수지
박순자	박순택	박용덕	박우형	박은경	박은령	박인수	박종갑	박종숙	박종인	박주현	박지연	박지혜
박춘옥	박태우	박해송	박현수	방환준	배유진	배희수	백태화	서완수	서주연	선수엽	설성현	손미주
손영희	송방용	송석훈	송연옥	송재봉	송필준	송호경	신동남	신승림	신윤신	신준국	신희숙	신희순
심규영	심정연	심재명	심희숙	안요한	안희영	양미혜	양윤정	여순자	오경민	오경희	오복실	오세근
오예진	오자성	오주빈	오진연	오형진	오혜은	우정환	원유호	유병현	유상현	유소미	유연종	유인숙
유창용	유희석	윤갑수	윤계량	윤귀빈	윤나미	윤종량	윤복숙	윤성준	윤연비	윤영조	윤용석	윤임선
윤정원	윤정화	윤찬섭	윤치웅	윤태욱	윤형진	윤혜영	이강승	이경란	이경자	이경호	이관용	
이기석	이덕철	이동례	이박정	이석호	이선희	이성옥	이세휘	이수섭	이수진	이수형	이숙재	이승용
이호주	이승훈	이영	이영미	이영숙	이영주	이옥경	이용진	이용철	이우주	이원표	이은경	이은주
이인배	이인옥	이자형	이재신	이재필	이소영	이정미	이정아	이정환	이정화	이정희	이종호	이준웅
이애숙	이현빈	이지승	이창열	이창우	이하용	이현경	이형재	이홍식	이희은	임대진	임동진	임성춘
임현지	임영석	임용현	임우영	임정웅	임희선	장경식	장남순	장병학	장수연	장은석	장한수	장홍석
전근	전대진	전상일	전서현	전재진	전현권	정동철	정성욱	정은숙	정용수	정재인	정재훈	정정선
정정숙	정정욱	정중훈	정지영	정지훈	정진민	정표진	정행순	정혜옥	정혜진	조경훈	조동철	조상현

조성윤	조성진	조성호	조영자	조윤희	조은미	조은영	조은주	조정숙	조종하	조주연	주고은	주현재	주혜리	지은미	차정훈	천강민
최계준	최광호	최규환	최두호	최미영	최미정	최보성	최보윤	최상범	최성자	최영열	최영주	최완주	최요원	최윤희	최은희	최정이
최종훈	최준	최창혁	하은지	한기영	한대희	한성철	한승희	한재범	한종현	함태화	허중강	현효선	홍기선	홍승균	홍승완	홍영숙
홍은진	황병호	황봉석	황서준	황서진	황성미	황순후	익명									

단체후원 (사)대한석탄협회 | (유)돌코리아(김도형 대표이사) | (주)에이비에스상사(여충기 대표) | (주)유엔아이솔루션즈(김창희, 임현영 대표) | (주)윙(조병우 회장) | (주)코벤(김상준, 임규창 대표) | (주)한국우드워드(이창환 대표) | 강동성심병원 직원기부 | 광운대학교 광운참사랑 | 기린약국(염해진 대표약사) | 동명기술공단 동우회 | 디테일링포럼×북세창×위시하여로 | 배재고등학교 | 법무법인 남산(하민호, 양원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지평(양영태, 김지형, 윤성원, 임성택 대표변호사) | 빛소금교회(김낙춘 담임목사) | 삼원아트무역(구윤관 대표) | 사본다마 코리아(주) 사랑나눔회원 | 스마일약국(서종원 대표약사) | 예은산부인과(이경호 원장) | 장이비인후과(장현주 원장) | 소망프라자(전란숙 대표) | 유미안외과(차진우 원장) | 명일전통시장 채일농산물(채종일 사장) | 코리아이매지니어링(강창식 대표) | 한국전력기술(주)

사업지정후원 (유)돌코리아_푸르메아카데미 외 8개 사업 | 푸르메재단_장애인 특수영양식 지원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_취약계층 설명회 지원사업 | 아름다운가게_중장년 발달장애인의 직업탐색지원사업 | 어린이재단_의료지원대상 생계비 지원

현물후원 고덕1동주민센터-아동내의 43개 | 김은엽-과자선물세트 23개 |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김장김치(10kg) 25박스, 냉동볶음밥(1.5kg) 150봉, 레드향 5박스 | 비알코리아(주)-도넛 660개, 우산 20개, 보냉백 20개, 원두 10봉(3회) | 빼내렌트-빵류 815개(22회) | 새우상사-햇고고 250개 | 서울선봉라이온스클럽-짜장면, 군만두 300인분, 갈굴(5kg) 5박스, 백미(10kg) 100포대, 요구르트 300개 | 서울장애인복지관협회-김호중2집앨범 600개 | 송일희망재단-컴퓨터 5종 523개 | 시립고덕로원-삼색볼펜티기 27봉, 냉동볶음밥(1.8kg) 10봉 | 춘향전-김치전 250장 | 티머니복지재단-재생사전거 5대 | 푸르메재단-옷돌이세트 500개 | 피자헛암사점-피자, 콜라 48세트(6회)

신한카드 아름인 30,000원	희망나눔플랫폼 CHERRY 체리(업설치) 261,617원	emart 지역단체 마일리지(명일점 0011) 65,890점	숨은천사 외 956명 4,098,880원
------------------------	------------------------------------	---	---------------------------



함께! 웃음! 환호! 제14회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개최



6월 1일(토), 복지관 잔디밭에서 돌(Dole)코리아 후원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은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총 88명의 초등학교와 가족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올해는 주민기획단이 문제 출제부터 행사 당일 스태프로 활동하였으며, 지역 주민 단체도 참가하여 가족들을 위한 키팅 만들기, 협동화 그리기, 역사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사전 행사로 참여 어린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알록달록한 우리 그래서 더 소중한-함께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여 경쟁이 아닌, 다양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퀴즈쇼는 장애 개념, 장애 스포츠 및 관련 인물, 장애인을 존중하는 태도, 장애인 권리 및 지원제도, 장애인 편의 지원 영역 총 5개 영역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정답이 발표될 때마다 환호와 응원이 울려 퍼졌다.



우리 가족 행복과
응원의 시간,
'장애이해퀴즈쇼
골든벨을 울려라'
스케치 영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복지관이 함께하는 '사회와 의료현장에서의 리빙랩' 수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와 복지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회와 의료현장에서의 리빙랩' 수업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개설된 전공선택 수업으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복지관 현장 경험을 결합했다. 장애 이해와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 등을 거쳐 복지관 직업재활 현장에서 7명의 학생과 당사자가 매칭 활동으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6월 10일(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진행한 최종 활동을 통해 어색했던 첫 만남부터 일상을 나누고 공감하기까지의 과정과 배움을 함께 나눴다.



건강증진팀, '내가 바로 건강 왕' 캠페인과 시상식 진행



건강증진팀이 5월 한 달간 진행한 '내가 바로 건강 왕' 캠페인에 총 23명이 참가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경험을 쌓았다.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점에 바이오 그래프(체성분 분석)를 통해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 등을 측정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했으며, 건강 지식을 높이는 정보와 장애인 건강 관리에 특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상담도 이어갔다. 6월 4일(화)에는 한 달간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인 6명을 선정하여 시상식도 열었다. 객재복 관장은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응원하며, 상품과 축하를 전했다.



'장애인의 날 주간, 420 복지관은 뭐하지?' 행사 개최



4월 16일(화)~17일(수),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이틀간 '장애인의 날 주간, 420 복지관은 뭐하지?'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로비에서는 달고나 이벤트, 슈링클스 키팅 만들기, VR·메타버스 체험 등을 상시 운영하고, 참가자 연령과 장애에 맞춰 영역별 치료 컨설팅과 스마트발달트레이닝 서비스를 더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도 진행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일일 카페와 사진 전시회도 열렸으며, 푸르메아카데미 당사자들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포장한 꽃을 나눴다. 강당에는 증강현실로 만나는 언택트 실내운동 플랫폼도 등장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피크닉 도시락과 푸드트럭 이벤트로 야외 잔디밭에서 풍성한 식사 시간을 갖는 동안 지역 단체의 다채로운 공연도 열려 4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e스포츠 국가대표 박주현 선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대상 수상



4월 23일(화), 복지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대상을 받았다. 고용지원팀을 통해 취업한 (주)티웨이애어서비스 소속 장애인 e스포츠 박주현 선수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관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로 소프트웨어 테스터, 데이터 라벨러 등을 개발해 왔으며, 장애인 e스포츠 분야로도 확대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와 당사자의 잠재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직업적응훈련생이 선택한 여가 활동, 2박 3일 제주도 여행



직업능력향상팀은 4월 22일(월)~24일(수), 2박 3일간 직업적응훈련생들이 직접 선택한 여가 활동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와 미디어아트 테마파크를 돌아보고,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는 해설사와 함께 숲의 치유 효과를 온몸으로 느꼈다. 또한, 감굴 과줄 만들기 및 쇠소깍에서 테우(통나무배)를 타보는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했다. 함께 여가를 즐기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쌓았다. 여행에서 얻은 활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준비와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